



07-17 (통권 144호)

2007.4.27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일본, 3월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고

경영 노트

-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월마트가 정상 탈환

사회 트렌드

-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 한국에 등 돌리는 조기유학

저널 브리프

- 중국의 세제 개편 배경

洗心錄

- 권세를 두려워 말라(동호직필, 董狐直筆)

□ 경상수지 '적자' 전환

-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3월에는 14.9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됨
 - 1~3월간 누적 경상수지도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약 4억 달러 증가하였음
 - 이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으로 소득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3월중 소득수지는 대외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2월의 8.5억 달러 흑자에서 20.9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어 2005년 4월의 21.2억 달러 적자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함

-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3~4월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수지 적자 확대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는 4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3월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고

- 지난 3월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73.9% 증가한 1조 6,334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이는 엔화 약세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의 증가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
 - 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엔화가치 하락으로 엔화 기준으로 평가한 수출액은 더욱 크게 늘어났음
 - 반면, 기록적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행은 현행 0.5%의 정책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월마트가 정상 탈환*

-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국 최대 기업 자리를 다시 탈환함
 - 월마트는 최근 노동착취기업이라는 이미지로 고전했으나 점포 확대 및 유기농산물 등에 집중한 전략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분석함
 - 하지만 매출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순익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동일점포 매출이 부진해 향후 정상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상위 10위 기업에는 석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약진과 자동차업체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여성CEO 기업의 증가도 특징으로 나타남
 - 고유가 지속으로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 모빌 및 경쟁사인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3사가 모두 5위권에 진입하며 강세를 보임
 - 또한 지난해 사상 최대의 M&A 덕을 본 씨티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AIG 등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금융기관이 약진함
 - 반면, 자동차업체는 최대 기업을 자랑하던 GM은 3위를 유지했으나, 포드는 포춘지가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남
 - 한편 500대 기업에는 지난 해에 비해 여성 CEO 기업이 3개 증가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포춘 500대 기업 순위 > (단위 : 억 달러)

순위	기업	매출	전년 순위
1	월마트	3,511	2
2	엑슨 모빌	3,472	1
3	제너럴 모터스(GM)	2,073	3
4	셰브론	2,005	4
5	코노코 필립스	1,724	6
6	제너럴 일렉트릭	1,683	7
7	포드 자동차	1,601	5
8	씨티 그룹	1,467	8
9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70	12
10	아메리칸 인터내셔널(AIG)	1,131	9

자료 : 포춘

- 매출 최고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에 유의해야 함
 - 포춘 선정 매출 1위인 월마트도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서는 20위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친환경 경영의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

* 매일경제(2007.4.17) 기사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임

□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 직장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이순신 장군과 링컨 전 미국 대통령임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1%가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고 응답함
 - 세종대왕이 15.5%로 2위를 차지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14%), 김구 선생(9%), 광개토대왕(4.7%), 신사임당(3.7%) 순으로 나타남
 - 해외 인물에는 링컨 전 대통령이 31.6%로 가장 높았고, 에디슨(10.3%), 간디(10%), 나폴레옹(7.2%), 아인슈타인(6.4%) 등의 순임
- 역사적 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80.5%이며, 대체로 어린 시절 정보 습득의 영향이 큼
 - 구체적인 존경 이유로 이순신 장군은 ‘희생정신, 애국심’(27.1%)과 ‘업적’(27.1%), 세종대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업적’을 선택함
 -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위인전(28.3%), 역사 교재(26.8%)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에 등 돌리는 조기유학

- 직장인의 54%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 희망 이유는 ‘다양한 경험’(47.5%), ‘어학 실력 향상’ (21.2%), ‘국내 교육 불만족’(10.8%) 등임
 - 이들의 67.1%는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자녀의 미래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과 ‘세상을 저버린 조승희’ 중에 무엇이 되느냐는 현재 조기유학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달려있음
 - 자녀 한 명의 연간 조기유학 비용으로 평균 3,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개월 이상 해외로 나간 사람 중 ‘학생’(대학 원생까지)의 비중이 무려 38%로 가장 많았음
 - 좀 더 넓은 시야와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아직도 영어교육에 치우쳐 있고, 심지어 현지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과외와 보습학원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진정으로 가능할 일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임

□ 중국의 세제 개편 배경*

■ (개요) 중국은 올해 3월, 외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킴

- 올해 3월에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 12만 위안 이상의 개인(외국인 포함)에 대한 자진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 그동안 지역별로 우대를 받아온 외국기업의 법인세율(15~24%)과 중국기업의 법인세율(33%)을 향후 25%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이에 기존의 소득세 면제 및 감면제도도 폐지하기로 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씩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

■ (목적) 중국의 세제 개편 추진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조화사회 건설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됨

- (지역 균형 발전) 투자 과열을 억제하면서도 낙후된 지역에서의 투자 촉진책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2004년 랴오닝 등 동북 3성에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8개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생산형(수출)에서 소비형(내수)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중부지방 6개성으로 확대하기로 함
- (산업구조 고도화) 자원 소모형 산업 및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
⇒ 과거 외자 승배 분위기에서 외국기업이 장비를 수입하는데도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젠 자국의 장비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우선 순위를 둠

■ (시사점) 향후 외국기업 및 개인의 탈세 방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진출의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함

- 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중국체재일수가 183일을 넘는 주재원은 해외 본사의 기본급여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탈세에 대한 세무 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 중국 진출 시, 외국기업의 세제 지원이 계속되는 장려 산업인 첨단, 서비스, 친환경, 인프라 산업으로 투자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7.4.2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권세를 두려워 말라(동호직필, 董狐直筆)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국사를 기록한 진(晉)의 태사(太史-나라의 법규 기록을 맡은 벼슬아치) 동호(董狐)와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알았던 당시의 정경(正卿-판서 등의 고위 관료를 일컬음) 조순(趙盾)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조순은 당시 사치스럽고 잔인하며 방탕했던 군주인 영공(靈公)에게 이를 고칠 것을 자주 권고했지만 영공은 이를 귀찮게 여겼다. 심지어 영공은 자객을 보내 조순을 살해하려 했으나, 조순의 인격에 반한 자객은 스스로 나무에 머리를 찢어 자결하였다. 결국 조순은 영공을 피해 병사들과 도주하게 되었고, 와중에 아우인 조천(趙穿)이 영공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조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영공의 살해범인 아우를 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동호(董狐)는 ‘조순, 군주를 시해하다’라고 기록했고, 조순은 이에 항의했다. 그러자 동호는 말했다. “대감께서 직접 영공을 시해한 것은 아니지만, 영공 시해 당시 국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복귀하여 범인을 처벌하려 하지도 않았습시다. 따라서 공식 시해자는 대감입니다.”

즉, 동호는 조순이 당연히 영공을 직접 살해한 범인이 아니지만 조천이 그의 동생이며 살해 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순을 영공 살해 세력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정경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조천, 군주를 시해하다’가 아니라 ‘조순, 영공을 시해하다’라는 표현이 옳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조순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으로 동호를 억박지를 수도 있었건만, 동호의 강직함을 높이 사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동호직필(董狐直筆)이란 동호와 조순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4자성어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원리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역사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려운 상대일수록 좋다.
오직 최고들만이 당신의 약점들을 보여줄 것이다.**

- 에른스트 하펠 : 오스트리아의 축구선 수, 트레이너